

임실군, 벨기에와 우정 재확인

심민 군수, ‘벨기에 국왕의 날’ 초청 참석…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로 이어진 60년 인연

심 민 임실군수가 임실N치즈의 아버지 故 지정환 신부의 모국인 ‘벨기에 국왕의 날’ 행사에 공식 초청 인사로 참석해 임실군과 벨기에 간의 깊은 인연을 되새기며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13일, 심 민 임실군수는 주한벨기에 대사관의 초청으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벨기에 국왕의 날(King’s Day)’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벨기에 왕실을 기념하고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주한 외교단과 정부 관계자, 국내 기업인, 벨기에 교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임실군과 벨기에의 특별한 인연은 60여 년 전 ‘대한민국 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故 지정환 신부(본명 디디에 세스텐스)로부터 시작됐다.

벨기에에서 온 지정환 신부는 1964년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해 당시 가난한 농촌 지역이던 임실 주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신앙 두 마리로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고, 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1967년 국내 최초의 치즈 생산에 성공했다.

지정환 신부의 헌신은 오늘날 ‘임실N치즈’로 이어져, 임실은 신선치즈, 숙성치즈, 발효유, 무가당 요거트 등 고품질 유제품을 전국에 공급하며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는 2015년 첫 개최 당시 10만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심 민 임실군수가 임실N치즈의 아버지 故 지정환 신부의 모국인 ‘벨기에 국왕의 날’ 행사에 공식 초청 인사로 참석해 임실군과 벨기에 간의 깊은 인연을 되새기며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장에,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3대 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지난 10월